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생활만족도

The Stress, Coping,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박혜진 · 박경란*
인제대학교

Hye Jin Park · Kyung Rhan Park*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the stress and coping behaviors perceived by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ir lif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we surveyed 239 mothers living in the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can categorize the stress into parental stress, economic stress, child developmental stress, physical stress, and emotional stress. Second, we can classify the coping behaviors into active efforts, avoidance, and emotional diversion. Lastly,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ends to depend on such factors as emotional stress, husband's support, parental stress, emotional diversion coping, economic stress, school- children, and their education.

Key Words : disabled children, stress, coping, life-satisfaction

I. 연구의 목적

가족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 한 구성원의 문제는 전체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가족의 문제도 가족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김미옥, 2000).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장애를 지닌 아동이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또한 가족이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치료·교육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장애아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가족이 장애아동으로 인해 병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어떤 가족이, 또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장애아동에 대해 가장 취약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대부분의 가족은 장애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적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이경희, 1993), 그 가운데서도 주로 주 양육자인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문헌들(양경화, 2001; 이한우, 1998)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과중한 역할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건강하게 대처·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연구들(김명운, 1995; 김종문, 1996; 김희수, 1995; 최지연, 2001)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장애아동 가족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의 종류와 대처행동의 유형을 고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과 심리적 복지를 향

* Corresponding author: Kyung Rhan Park
Tel: 055) 320-3242, Fax: 055) 321-9550
E-mail: homerhan@inje.ac.kr

상시키는데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가 심리적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어떤 대처행동이 심리적응에 보다 효율적인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어떠한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물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사회교육 및 서비스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관련문헌의 고찰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뜻한다(Berko, 1997). 즉, 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가 개인에게 부과될 때 정상적인 적응적 반응들이 찾아지지 않거나 효율적이 아닐 때 체내에서 발생하는 비 특이적인 생물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출현은 가정의 안정된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첫째,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된 스트레스 둘째, 아동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셋째, 장애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스트레스 넷째,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자녀의 원인, 치료, 교육 및 예후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분류해 볼 수 있다(문정희, 1994). 김명은(1995)은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장애 특성과 관련된 스트레스(30.1%)'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또래와의 관계나 정상아동과의 비교(25.1%)'

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 성적 문제(18.3%)'와 '자녀의 성격(14.1%)'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성희와 전길양(2004)은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으로 장애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장애아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장애아동의 형제문제 등을 꼽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녀의 장애는 여러 측면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깊게 관련됨을 보여 준다.

관련변인별로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부 연구(김정애, 2000; 김종문, 1996)에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김희수, 2000; 이한우, 1998; 최지연, 2001)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학력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며(김종문, 1996; 추영란·최보가, 1995),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으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김일수, 2000; 이한우, 2002)이 더 많다.

장애아동의 성별로 볼 때, Farber 등(1986)은 장애아동이 여아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남아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지만(김영미, 1990 재인용), 최근의 연구들(이한우, 1998; 최지연, 2001)은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취학 여부에 따라서는 학령전기 장애아동에 비해 학령기 장애아동의 부모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한우, 1998), 장애정도가 심각할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김나영·윤호열, 2000; 이한우, 2002).

가정환경 변인에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옥, 2000; 김정애, 2000). 남편의 지지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정요인인 것으로(신향숙, 2000; 최지연, 2001) 보고되고 있다.

2.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란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 것이며(Menaghan, 1983), 대처행동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태도 및 행동(이정연, 1990)을 말한다. 스트레스 대처에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에 대한 관리, 증상을 감소시키는 상황의 의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증상의 관리 등 세 측면이 포함된다(Pearlin 등, 1990).

이와 관련하여 정청자(1989)는 장애아동 가정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대처행동 유형을 첫째, 가정의 통합, 협동, 낙관적 상황 정의 등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 행동유형 둘째, 사회적 지지의 추구, 자기존중, 심리적 안정 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 행동유형 셋째, 의료진과의 상담, 의학적 정보추구, 부모들과의 만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성희와 전길양(2004)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자녀와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아동의 특수행동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기,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 및 신앙적 도움을 꼽았다.

김명은(1995)은 장애아동 어머니는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적극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주의 전환과 소극적 철수와 같은 '소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 및 정서 표출 등의 '정서적 대처'를 행한다고 하였으며, 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대처행동은 '적극적 대처'라고 밝혔다. Friedrich 등(1983) 역시 장애아동 부모의 다양한 대처자원 가운데,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자신의 내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련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처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연구한 이미자(1991)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처가 다양해져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인 경우는 "주위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인 집단에서는 "남편과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경향이였다. 취업유무별로 보면 취업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어머니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문, 1996). 그러나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정청자, 1989).

가정환경 변인 중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였다(최용득, 1993). 또한 남편지지도와 같은 각종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다양한 대처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청자, 1989).

3.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만족에 대한 개념은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며 그 정의 역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일례로 Burr(1970)는 만족이란 개인이 목표나 욕망의 달성

정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Campbell 등(1976)은 만족이란 열망과 성취간의 인지된 차이라고 하였다(박미금, 1994 재인용).

우선,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 어머니 가운데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대체로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였다(김나영·윤호열, 2000; 송현정, 1998). 장애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하수민과 윤종희(2002)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반면, 김미옥(2000)은 학령기 아동일수록 가족의 적응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한우(2002)는 학령기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어 연구간에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부모의 적응(김나영·윤호열, 2000; 김미옥, 2000; 정원미, 1994)과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김일수, 2000).

남편의 지지면에서 서혜영(1992)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남편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으며, 김나영과 윤호열(2000)도 부부관계가 가족결합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가족소득 역시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나영·윤호열, 2000; 김미옥, 2000).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재선(2000)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여가생활과 경제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며, 배우자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애(2000)는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며, 고정자와 김갑숙(1996)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의 질은 높아진다고 보고하는 등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별로 생활만족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처행동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볼 때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연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대처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지만, 대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김명은, 1995).

신향숙(2000)은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최지연(2001)은 문제집중 방식의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정서 완화적 대처유형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재은과 최희선(1995)의 연구에서도 문제 해결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대처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어떤 대처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생활만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김해·창원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 239명이다(표 1). 본 연구에서의 장애아동은 병원이나 장애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전반적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과 구체적인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주요 발달 영역에서 정상발달 수준과 비교하여 심각한 차이가 나는 아동이 모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은 먼저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포함하는 특수학교 3곳과, 복지관·장애전담 어린이집·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등 특수교육 관련 기관 10곳 등 총 13곳에서 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자료의 수집은 2003년 5월에서 7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윤창영, 2002, 조수용, 1996), 스트레스(김기현·강희경, 1997; 김일수, 2000), 대처행동(최지연, 2001) 및 남편지지도(구재선, 2000)에 대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39)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개인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92 38.5
		35세-40세	91 38.1
		40세 이상	56 23.4
		계	239 100.0
	학력	고졸이하	132 55.2
		전문대졸	49 20.5
		대졸이상	58 24.3
		계	239 100.0
	취업 유무	전업주부	178 74.5
취업주부		61 25.5	
계		239 100.0	
자녀 변인	성별	아들	157 65.7
		딸	82 34.3
		계	239 100.0
	취학 여부	학령전기	153 64.0
		학 령 기	86 36.0
		계	239 10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99 41.4
		전반적 발달장애	67 28.0
		뇌병변장애	45 18.8
		언어장애	21 8.8
		지체장애	7 2.9
	계	239 100.0	
장애 정도	경미한 편	51 21.3	
	보통인 편	96 40.2	
	다소 중한 편	80 33.5	
	중한 편	12 5.0	
	계	239 100.0	
가족환경 변인	남편 지지도	낮음	74 31.0
		보통	100 41.8
		높음	65 27.2
		계	239 100.0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41 17.2
		150만원-250만원	102 42.7
		250만원 이상	84 35.1
		계	227 100.0

주: 일부 문항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척도는 관련문헌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변인	문항수	응답 범주	점수 범위	Cronbach α	
생활만족도	13	1 - 5	13 - 65	.92	
스트레스 유형	정서적 스트레스	5	1 - 5	5 - 25	.83
	부모역할 스트레스	3	1 - 5	3 - 15	.72
	경제적 스트레스	2	1 - 5	2 - 10	.76
	자녀발달 스트레스	2	1 - 5	2 - 10	.71
	신체적 스트레스	3	1 - 5	3 - 15	.64
대처행동 유형	적극적 노력형	5	1 - 5	5 - 25	.76
	기분 해소형	2	1 - 5	2 - 10	.69
	회 피 형	3	1 - 5	3 - 15	.64
배경변인	남편 지지도	10	1 - 5	10 - 50	.82

본 자료의 분석은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행하였으며, 집단간에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Duncan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상관관계분석과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15개 문항의 5개 요인 즉 '정서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발달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이 추출되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전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9점으로, 가장 심한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3.62점)이었고, 그 다음이 경제적 스트레스(3.39점), 자녀발달 스트레스(3.23점), 신체적 스트레스

(3.15), 정서적 스트레스(2.87점)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로 인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보다는 자녀의 앞날과 발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종문, 1996; 이미자, 1991)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 자녀 변인, 가족 환경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4). 먼저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스트레스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발달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고졸이하의 집단은 대학졸업 이상의 집단에 비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발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종문(1996)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자녀 변인별로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녀의 성별과 취학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표 3>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분석

문항	요인				
	정서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발달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아이를 보면 긴장되고 우울해진다.	.68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70				
아이가 원망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81				
내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77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65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68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7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다.		.69			
아이의 양육비가 많이 들어 부담스럽다.			.87		
치료비나 약값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77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82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괴롭게 느껴진다.				.77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51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7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72
고유값	5.64	1.37	1.08	1.02	.91
분산	37.60	9.10	7.19	6.78	6.07
누적분산	37.60	46.70	53.89	60.67	66.74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정서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발달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개인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92	2.75		3.64		3.59		3.24		3.23		3.20	
		35세-40세	91	2.90		3.57		3.24		3.23		3.09		3.16	
		40세 이상	56	3.01		3.67		3.31		3.21		3.11		3.23	
		F값		1.48		.25		2.78		.02		.77		.15	
	학력	고졸이하	132	2.96		3.72		3.66	b	3.39	b	3.16		3.27	b
		전문대졸	49	2.89		3.54		3.41	ab	3.17	ab	3.20		3.22	ab
		대졸이상	58	2.64		3.45		3.13	a	2.92	a	3.06		2.99	a
		F값		2.25		2.31		3.44*		4.16*		.45		3.18*	
	취업 유무	전업주부	178	2.80		3.60		3.38		3.24		3.12		3.16	
		취업주부	61	3.07		3.69		3.43		3.22		3.22		3.29	
t값			-1.94		-.74		-.32		.14		-.86		-1.28		
자녀 변인	성별	남 자	157	2.93		3.60		3.39		3.27		3.17		3.22	
		여 자	82	2.74		3.67		3.40		3.15		3.09		3.14	
		t값		1.47		-.68		-.08		.87		.73		.81	
	취학 여부	학령전기	153	2.75		3.60		3.49		3.21		3.25		3.18	
		학 령 기	86	3.07		3.66		3.22		3.26		2.96		3.21	
		t값		-2.45*		-.54		1.88		-.31		2.73*		-.29	
	장애 정도	경미한 편	51	2.31	a	3.08	a	3.01	a	3.10		2.66	a	2.73	a
		보통인 편	96	2.88	b	3.74	b	3.49	ab	3.26		3.16	b	3.24	b
		다소 중한 편	80	3.20	b	3.81	b	3.46	ab	3.26		3.32	b	3.39	b
		중한 편	12	2.93	b	3.69	b	3.75	b	3.38		3.89	c	3.44	b
F값			10.16***		9.88***		3.20*		.38		12.25***		11.12***		
가족 환경 변인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41	2.96		3.78	b	3.81	b	3.40	b	3.23	b	3.35	b
		150-250만원	102	2.98		3.67	ab	3.63	a	3.38	a	3.26	a	3.31	b
		250만원 이상	84	2.71		3.47	a	2.92	a	2.97	a	2.95	a	2.97	a
		F값		2.21		2.32*		16.74***		4.51*		3.77*		7.19**	
	남편 지지도	낮음	74	3.32	c	3.90	b	3.65	b	3.41	b	3.45	b	3.52	c
		보통	100	2.85	b	3.59	a	3.45	b	3.32	b	3.08	a	3.19	b
		높음	65	2.37	a	3.35	a	3.00	a	2.88	a	2.91	a	2.82	a
		F값		20.42***		7.69**		7.33**		5.35**		8.69***		19.07***	

*p<.05 **p<.01 ***p<.001

없었으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장애 정도가 “경미한 편”일 때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스트레스 유형별로 보면, 취학 여부에 따라서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자녀의 장애가 “경미한” 어머니가 정서적, 부모역할, 경제적, 자녀발달,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청자(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본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가족환경 변인별로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p<.01)과 남편지지도(p<.001)에 따라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월 평균 소득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편지지도는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신향숙, 2000; 정원미, 1994; 정청자, 1989; 최지연,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표 5>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요인분석

문항	요인		
	적극적 노력형	기분 해소형	회피형
아이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84		
금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74		
아이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82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다.	.49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눈다.	.64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84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버린다.		.77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운으로 돌린다.			.71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74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59
고유값	2.98	1.52	1.29
분산	29.78	15.16	12.89
누적분산	29.78	44.94	57.83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은 요인분석 결과(표 5),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의 3개 요인 즉 '적극적 노력형', '기분 해소형', '회피형'으로 추출되었다. 대처행동 가운데 장애아동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한 유형은 '적극적 노력형'(3.63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회피형(3.36점)'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기분 해소형(3.13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기분을 해소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보다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을 개인적 변인, 자녀변인,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6), 먼저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기분 해소형에서만 차이가 있었다($p<.05$). 즉, 35세 미만인 집단보다 40세 이상인 집단에서 기분 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사용한다는 이미자(199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력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에서는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적극적 노력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p<.01$),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기분 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05$). 추측컨대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는 직업과 관련하여 기분

을 해소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 변인별로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보다 기분 해소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p<.05$). 또한 자녀의 장애가 "중한 편"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 노력형($p<.05$)과 회피형($p<.01$)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장애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형의 대처도 많이 사용하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자녀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거나 기적을 바라는 회피형의 대처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청자(1989)는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대처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혀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가족환경 변인별로는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 기분 해소형과 회피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월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250만원 이상인 집단이 기분 해소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p<.01$), 상대적으로 낮은 월 평균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은 회피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추측컨대 가정의 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 장애아동 어머니는 보다 다양한 기분해소 방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지지도에 따라서는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적극적 노력형($p<.001$)과 기분 해소형($p<.001$)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상황에 대한 회피형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적극적 노력형		기본 해소형		회피형		
			평균	D	평균	D	평균	D	
개인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92	3.63		2.98	a	3.42	
		35세-40세	91	3.56		3.15	ab	3.34	
		40세 이상	56	3.77		3.36	b	3.30	
		F값		1.65		2.63*		.40	
	학력	고졸이하	132	3.50	a	2.97	a	3.40	
		전문대졸	49	3.76	b	3.23	ab	3.28	
		대졸이상	58	3.83	b	3.42	b	3.35	
		F값		5.65**		4.60*		.37	
	취업 유무	전업주부	178	3.65		3.05		3.32	
		취업주부	61	3.58		3.36		3.48	
t값			.70		-2.10*		-1.27		
자녀 변인	성별	남 자	157	3.64		3.12		3.35	
		여 자	82	3.61		3.16		3.38	
		t값		.31		-.32		-.25	
	취학 여부	학령전기	153	3.66		3.02		3.41	
		학 령 기	86	3.59		3.33		3.28	
		t값		7.19		-2.29*		1.19	
	장애 정도	경미한 편	51	3.75	ab	3.20		3.04	a
		보통인 편	96	3.63	ab	3.14		3.33	ab
		다소 중한 편	80	3.51	a	3.05		3.54	bc
		중한 편	12	3.97	b	3.13		3.75	c
F값			2.38*		.41		5.01**		
가족 환경 변인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41	3.64		3.12	ab	3.56	b
		150-250만원	102	3.68		2.94	a	3.43	ab
		250만원 이상	84	3.61		3.41	b	3.20	a
		F값		.24		5.45**		3.29*	
	남편 지지도	낮 음	74	3.39	a	2.87	a	3.53	b
		보 통	100	3.55	a	3.03	a	3.39	b
		높 음	65	4.04	b	3.59	b	3.12	a
		F값		19.20***		10.92***		4.43*	

*p<.05 **p<.01 ***p<.001

(p<.05)의 부정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 어머니의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지윤(1998)의 연구(3.24점)와 임효영과 김경신(2001)의 연구(3.27점)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경향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스트레스 유형, 대처행동 유형, 남편 지지도와 생활만족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의 제 1단계에서는 배경변인(개인적 변인, 자녀 변인, 가족환경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 2 단계에서는 배경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제 3단계 최종분석결과에서는 배경변인, 스트레스 변인, 대처행동 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 이었으며(p<.001), 그 다음이 남편 지지도(p<.001), 부모역할 스트레스(p<.01), 기본해소형의 대처(p<.01), 경제적 스트레스(p<.01), 자녀의 취학 여부

<표 7>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남편지지도	1.00									
(2) 정서적 스트레스	-.38**	1.00								
(3) 부모역할 스트레스	-.26**	.60**	1.00							
(4) 경제적 스트레스	-.24**	.44**	.44**	1.00						
(5) 자녀발달 스트레스	-.19**	.51**	.45**	.40**	1.00					
(6) 신체적 스트레스	-.23**	.45**	.45**	.45**	.27**	1.00				
(7) 적극적 노력형	.38**	-.21**	-.18**	.14*	-.07	.00	1.00			
(8) 기분 해소형	.25**	-.23**	-.26**	-.15*	-.14*	-.19**	.33**	1.00		
(9) 회피형	-.17**	.35**	.26**	.29**	.35**	.32**	.07	-.06	1.00	
(10) 생활만족도	.55**	-.62*	-.55*	-.49**	-.37**	-.41**	.25**	.43**	-.30**	1.00

*p<.05 **p<.01 ***p<.001

<표 8>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제1단계 β	제2단계 β	제3단계 β
배경변인	연령	-.05	-.01	-.01
	학력a)	.08	.08	.06
	전문대졸	.16*	.13*	.10*
	대졸이상	.08	.10*	.08
	취업 유무a)			
	성별a)	-.00	.00	.01
	취학 여부a)	.11	.11*	.11*
	장애정도a)	-.17*	-.02	-.02
	다소중환편	-.23**	-.01	.01
	중환 편	-.09	.04	.04
매우중환편				
월 평균 소득	.14*	.03	.04	
남편지지도	.47***	.31***	.27***	
스트레스 유형	정서적 스트레스		-.33***	-.29***
	부모역할 스트레스		-.19**	-.18**
	경제적 스트레스		-.16**	-.16**
	자녀발달 스트레스		.03	.04
	신체적 스트레스		-.03	-.01
대처행동 유형	적극적 노력형			.01
	기분해소형			.17**
	회피형			-.06
상수		.63	.79	.81
수정된 R ²		.37	.60	.62
F		13.07***	21.25***	19.60***

*p<.05 **p<.01 ***p<.001

주) 다음의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였음.

- 학력 : 고졸이하(0 0), 전문대졸(1 0), 대졸이상(0 1)
- 취업유무 : 전업주부(0), 취업주부(1)
- 성별 : 남아(0), 여아(1)
- 취학여부 : 학령전기(0), 학령기(1)
- 장애정도 : 경미한편(0 0 0), 다소중환편(1 0 0), 중환편(0 1 0), 매우중환편(0 0 1)

(p<.05), 어머니의 학력(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7개 변인의 설명력은 62%였다. 즉, 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β=-.29), 남편 지지도가 높을수록(β=.27),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β=-.18), 기분 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β=.17),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β=-.16), 장애자녀가 학령기 아동일 때(β

=.11),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β=.10)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김나영·윤호열, 2000; 서혜영, 1998; 신향숙, 2000; 정청자, 1989)에서도 남편 지지도와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의 주요 변수로 지적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초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배경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배경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어떠하며,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는 부모역할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발달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장애정도, 월평균소득, 남편지지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적극적 노력형'의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형', '기분 해소형'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장애정도, 월평균소득, 남편지지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29$), 남편 지지도가 높을수록($\beta=.27$),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18$), 기분 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beta=.17$),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16$), 자녀가 학령기 아동일 때($\beta=.11$),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beta=.10$)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였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정서적 스트레스임을 고려해 볼 때,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상담센터나 이야기 나눔방 같은 다양한 시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여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가장 높게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였으며, 또한 이것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세 번째 주요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정보제공의 실시가 요망된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처유형은 적극적 노력형이었으나, 세 가지 대처유형 가운데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기분 해소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적극적 대처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들(정재은·최희선, 1995; 최지연, 2001)과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억눌린 스트레스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기분 해소를 위한 건전한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족들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특히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남편의 지지정도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보다는 가족원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자녀를 돌보아주는 과정에서 아내가 겪고 있는 고충과 스트레스를 잘 인식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던 아동의 장애정도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가 아니면 가벼운가의 여부보다는 자녀가 장애라는 현재 상황을 어머니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섯째, 앞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어머니 이외에 아버지,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활성화시켜 장애아동 어머니와 그 가족의 복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

육·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표본선정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대상 선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장애아동, 스트레스, 대처행동, 생활만족도

참고문헌

-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 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구재선(2000).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자기효능감과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나영·윤호열(2000).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결합력, *대한가정학회지*, 38(7), 53-65.
- 김명운(1995). 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스트 레스와 대처 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0).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 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0).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수(2000).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적응에 관 한 연구: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애(2000). 자녀 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스 트레스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문(1996).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동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1998). 기혼여성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1995). 장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자원과 의 관계: 부모통제소와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정희(1994). 정신지체아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스 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 주관적 경제 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200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디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화(2001).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윤창영(2002). 기혼 직장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 구: 직장-가정 갈등 모형과 영역별 삶의 질 모형의 통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1993). 장애아동의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 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자(1991). 뇌성마비아의 장애정도와 어머니의 스트레 스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희·전길양(2004).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의 경험과 부 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자폐아, 정신지 체아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57-83.
-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 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5.
- 이한우(1998).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 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원미(1994).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정재은·최희선.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5, 13(1) : 123-133.
- 정청자(1989). 장애아 가정의 긴장(stress)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어머니의 대처 자원을 중심으로,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용(1996). 주관적 지표에 의한 '삶의 질' 측정연구, 건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연(20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둔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득(1993).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 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란·최보가(1995). 취학 전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 활동장애 및 가족변인이 부모역할, 가족기능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5), 241-254.
- 하수민·윤종희(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Connecting(1997).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 Friedrich. W. N., Greenberg. M. T., & Crnic. K. A.(1983). Short-form of 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1), 41-48.
- Menaghan, E. G.(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actions: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71-385.
- Pearlin, L. I., Mullan, J. T., & Skaff, M. M.(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2004. 08. 13 접수; 2004. 10. 01 채택)